

2025.12.03
주간 제 451 호



중국창업

WEEKLY 뉴스 | CHINA 창업 | KIC 뉴스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전화: +86-10-6780-8840

센터장: 김종문
메일문의: info@kicchina.org

WEEKLY 뉴스

中 광치그룹, 대용량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 가동...에너지 밀도 2 배로 1,000km 주행거리 시대 연다	P1
샤오미 자동차, 출시 20 개월 만에 50 만 대 생산 돌파...'76 초당 1 대' 효율로 가장 빠른 흑자 전환까지 달성	P2
중국과학원, '인공태양' 연소 플라즈마 프로젝트 출범...2027 년 BEST 완공 후 에너지 순생산 도전	P4
유니트리, IPO 지도심사 단계 진입...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최초 상장 '막바지'	P5

CHINA 창업

[기업분석] 화웨이, AI 컨테이너 'Flex:ai' 오픈소스 공개...엔비디아 Run:ai 맞서 이기종 칩 지원	P7
[기업분석] AI 칩 개발 기업- 캄브리콘(寒武纪)	P12
[지역분석] 스자좡 하이테크구	P14

KIC 뉴스

KIC 중국, '2025 BiiG WAVE Global China' 통해 한중 기술·창업 협력의 새로운 교두보 마련	P16
KIC 중국, GSF 포럼 개최	P18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P19
------------------	-----

WEEKLY 뉴스

■ 中 광치그룹, 대용량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 가동...에너지 밀도 2 배로 1,000km 주행거리 시대 연다

현재 중국에서는 첫 대용량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이 마련되어 소량 시험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동 생산라인은 광치그룹(广汽集团)이 구축한 것으로, 업계에서 가장 먼저 60Ah 이상의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없이 모두 고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향후 전기차는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전성도 크게 향상된다.

중전 액체 배터리는 양극 제조 단계에서 슬러리(중간재) 준비와 코팅, 캘린더링 등 세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건식 배터리는 이 과정들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 공정이 최적화되었다.

광치그룹에 따르면 이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보다 에너지 밀도가 거의 두 배 가량 높다. 이는 해당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기존 500km 주행이 가능했던 전기차가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치그룹은 2026 년 소규모 차량 탑재 실험을 진행하고 2027 년부터 2030 년까지 단계적으로 양산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장샤오펬이(张小飞) 가오공리텐(高工锂电) 회장은 11 월 18 일 열린 '2025 가오공리텐 연차총회(2025 高工锂电年会)'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향후 15 년간 글로벌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며, 중국은 향후 이 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2025 중국 전고체 리튬배터리 산업체인 발전 블루북(2025 中国固态锂电池产业链发展蓝皮书)>은 업계가 2027 년(또는 2028 년)부터 2030 년 사이 GWh 급 생산라인 구축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2035 년에는 전 세계 전고체 리튬배터리 출하량이 900GWh 를 넘어설 것이므로 내다봤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시장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제조 공정과 실제 활용 측면에서도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응용 단계에서는 일부 배터리 기업들이 신에너지 차량 분야에서 전고체 배터리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도 기존 35 만 위안 이상 고급차에서 30 만 위안 이하 모델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eVTOL 분야에서는 이항스마트(亿航智能)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eVTOL 비행 시험에 성공하였으며, 기존 대비 60%~90% 향상된 비행 지속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전고체 배터리 산업 전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높은 제조 원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5 년 9 월 기준, 중국의 반고체 배터리 셀 가격은 Wh 당 약 0.5~0.7 위안, 전고체 배터리는 Wh 당 2~3 위안 수준으로, 액체 전해질 기반 배터리(Wh 당 0.4~0.5 위안)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블루북>은 현재 양산 중인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가 주로 복합 전해질 계열이며, 일부 폴리머 전해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2027 년 이후 소규모 차량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2035 년 전 세계 전고체 리튬배터리 출하량이 900GWh 를 넘어설 것이며, 그중 전고체 배터리는 550GWh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고로 2024 년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은 약 1500GWh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6 년은 반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고체 배터리 생산설비 확충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설도 반고체 배터리가 중심이 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저장(ESS) 분야에서 설비 확충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GGI 의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중국 고체 배터리 업계의 계획 생산능력은 450GWh 를 넘어섰고, 이 중 98% 이상이 반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실제 가동되고 있는 설비 규모는 25GWh 이상이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규모는 20GWh 에도 미치지 못한다. (출처: 메이르징지신원)

■ 샤오미 자동차, 출시 20 개월 만에 50 만 대 생산 돌파...'76 초당 1 대' 효율로 가장 빠른 흑자 전환까지 달성

샤오미(小米) 자동차가 출시 후 불과 20 개월 만에 누적 50 만 대 생산을 달성하며 생산 능력 확대와 시장 확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4 년 4 월 첫 차량 인도 이후 50 만 번째 차량이 생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602 일로, 아이토(AITO, 问界), 리오토(Li Auto, 理想), 니오(NIO, 蔚来), 테슬라 등 주요 신생 전기차 브랜드를 크게 앞선 기록이다. 이를 통해 샤오미는 뛰어난 운영 효율을 입증했다.

생산 기술 측면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샤오미 자동차 베이징 이창(亦庄) 공장은 700 대 이상의 산업용 로봇, 초대형 다이캐스팅, AI 기반 품질 검사, 자체 개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76 초당 차량 1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 효율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생산 방식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2025 년 10 월에는 월간 인도량이 4 만 대를 돌파했고, 11 월까지 누적 인도량은 36.3 만 대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인도량은 40 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성과와 제품 경쟁력도 뚜렷하다. SU7 시리즈는 10 개월 연속 중대형 순수 전기 세단 판매 1 위를 기록했고, Ultra 버전은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에서 7 분 4.957 초의 랩타임으

로 신기록을 세웠다. YU7 시리즈 역시 2025년 10월 중국 내 전 차종 SUV 판매 1위에 올랐다. 사전 예약 단계에서는 '연간 생산량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예약 개시 18시간 만에 24만 대 이상의 주문이 쇄도했다.

재무 성과와 업계 내 입지도 빠르게 공고해지고 있다. 2025년 3분기 샤오미 자동차 매출은 29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99.2% 증가했다. 특히 이 분기에 7억 위안의 첫 흑자를 달성하며, 신생 전기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출고량 기준으로 샤오미 자동차는 신생 브랜드 중 1위 티어를 확고히 지키며, 샤오펑(Xpeng, 小鹏), 리프모터(Leapmotor, 零跑)를 제치고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빠른 성장 속도만큼 생산과 인도 측면의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인도 대기 주문이 30만 대를 넘어섰고, 그 중 YU7 시리즈의 대기 물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해당 모델을 주문한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직영점의 락오더 인센티브가 차량이 실제 고객에게 인도된 뒤에만 지급되다 보니 판매 채널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안전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두(成都)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도어 잠금·해제 기능과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샤오미가 관련 테스트 데이터를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제품 안전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샤오미 자동차는 향후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더욱 키우고, 단계적으로 해외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연간 40만 대 이상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누적 100만 대 생산이라는 보다 공격적인 목표에도 도전한다. 글로벌 전략으로는 이미 뉘르부르크링 지역에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27년에는 유럽시장에 공식 진출할 예정이며, 진출 초기에는 독일과 노르웨이를 핵심 전략 지역으로 잡을 계획이다.

또한 샤오미 자동차는 자사만의 '사람-차-집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 전략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통합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SU7 Ultra 모델은 Mi Home(米家) 스마트홈과 연동되어 사용자가 차량에서 집 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샤오미 자동차는 높은 생산 효율, 주력 모델의 성공, 생태계 연동 능력을 바탕으로 출시 21개월 만에 누적 생산 50만 대를 달성하며 업계의 성장 기준을 새로 세웠다.

향후에는 확장 속에서도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얼마나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샤오미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더욱 강력하게 흔들며 보다 중요한 시장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원찬서우자)

■ 중국과학원, '인공태양' 연소 플라즈마 프로젝트 출범...2027 년 BEST 완공 후 에너지 순생산 도전

11 월 24 일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은 '연소 플라즈마' 글로벌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하고, 국제 핵융합 연구계에 처음으로 BEST(소형 핵융합 에너지 실험장치) 연구 계획을 공개했다.

연구 계획에 따르면 이 장치는 2027 년 말 완공 후 '중수소-삼중수소 연소 플라즈마'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20~200MW 규모의 핵융합 출력으로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순생산'을 달성함으로써, 핵융합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을 실증하고자 한다.

핵융합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고, 연료가 풍부하며, 에너지 밀도가 높고, 스스로 반응을 조절하는 장점을 지녀, 미래 청정에너지의 최종 목표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인공태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BEST 장치는 중국의 차세대 '인공태양'으로서, 핵융합 플라즈마를 실제로 '연소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BEST 는 ITER 나 EAST 같은 기존 장치와 달리, '소형 및 고자장' 기술 방식을 적용하였다.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작은 공간에서도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고 압축할 수 있어, 장치 규모를 줄이면서도 높은 출력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로써 연구의 초점이 단순한 원리 검증을 넘어, 실제 엔지니어링 구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즉, 상업용 핵융합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핵융합 '연소'는 현재 물리학에서 손꼽히는 난제 중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연소 플라즈마'란, 핵융합 반응이 마치 불꽃처럼 외부에서 계속 열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열로 반응을 유지하는 상태를 뜻한다.

중국과학원 허페이 물질과학연구원(中国科学院合肥物质科学研究院) 송윈타오(宋云涛) 부원장은 "연소 플라즈마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중국의 핵융합 연구가 사실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과학적 난제 영역'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물리·공학적 난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핵융합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연소 플라즈마' 글로벌 과학 계획은 중국이 핵융합 연구에서 한층 더 개방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플라즈마물리연구소는 BEST 를 포함한 여러 핵융합 대형 실험 플랫폼을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개방형 연구기금을 마련하며, 전문가 간의 빈번한

상호 교류와 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10 여 개국의 핵융합 과학자들은 <허페이 핵융합 선언(合肥聚变宣言)>에 공동 서명했으며, 이 선언은 개방, 공유, 협력, 상생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각국 연구자들이 중국에서 핵융합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핵융합 분야에서 대규모 입찰이 잇따르고 있으며, 입찰 금액과 횟수를 보면 중국 내 핵융합 프로젝트의 조달 속도가 확연히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내 핵융합 프로젝트의 입찰 속도가 빨라지며, 업계가 본격적인 투자 집중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BEST 프로젝트의 시공사인 '쥬벤신닝(聚变新能)'는 전원장치, 저온 설비, 블랭킷 등 시스템을 포함해 총 20 억 위안 규모의 조달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중국과학원 플라즈마 연구소 또한 13 억 위안이 넘는 삼중수소 플랫폼 조달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 삼중수소는 핵융합의 핵심 연료로, 관련 기술은 현재 연구개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대증권(光大证券)은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 구조가 한층 복잡해지는 가운데, 제어 핵융합이 장기적으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평가했다. 특히 BEST, '성화 1 호(星火一号)', '중국 환류 4 호(中国环流四号)' 등 핵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금공사(中金公司)는 핵융합 기술이 실험실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 엔지니어링 검증과 데모 플랜트 구축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산업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 구간'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ITER 사례를 보면, 핵융합 장치의 핵심 가치는 자기장 시스템(28%), 블랭킷(17%), 진공용기(14%), 디버터(8%) 네 가지 주요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산업 전반의 속도를 좌우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능력과 AI 기반 플라즈마 제어 등 다학제 기술의 융합 수준이 핵융합이 글로벌 에너지 구조에서의 위치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차이렌서)

■ 유니트리, IPO 지도심사 단계 진입...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최초 상장 '막바지'

중국 로봇 선도기업 유니트리(UNITREE, 宇树科技)가 IPO 사전 점검을 마치고 '지도 심사'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사전 점검은 중신증권(中信证券)이 담당했다. 이로써 유니트리가 A 주 시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중 최초로 상장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이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전반에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신호로 평가된다.

지도 심사 자료에 따르면, 유니트리 창업자이자 실제 지배 주주인 왕싱싱(王兴兴)대표는 직접 보유한 지분 23.82%와 상하이 위이(宇翼) 기업관리컨설팅 파트너기업을 통한 간접 지분 10.94%를 합쳐 총 34.7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배 구조는 창업 팀의 안정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향후 투자 유치와 자본 운용에 충분한 유연성을 남겨둔 구조라는 평가다.

2016 년에 설립된 유니트리는 7 년간의 집중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표 모델인 H1 휴머노이드 로봇은 올해 CCTV 춘절 연휴 특별 무대에 올라 고난도 군무를 선보이며 대중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주목할 점은 유니트리가 사족보행 로봇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2024 년 매출 구성은 사족보행 로봇(65%), 휴머노이드 로봇(30%), 부품(5%)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는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할 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6 월, 유니트리는 약 7 억 위안 규모의 C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차이나모바일 계열 펀드(中国移动旗下基金), 텐센트(腾讯), 알리바바(阿里), 앤트그룹(蚂蚁集团), 지리(Geely) 캐피탈 등이 참여했다. 이번 투자 후 유니트리의 기업가치는 약 120 억 위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니트리는 2020 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 왔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2024 년 매출은 10 억 위안을 돌파하며 '고성장+안정적 수익성'이라는 우수한 재무구조를 입증했다.

유니트리는 2024 년 4 분기 IPO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장이 이뤄질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상용화 및 대규모 양산에 필요한 자금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해, 중국의 유비텍(UBTECH, 优必选), 클라우드마인즈(CloudMinds, 优必选)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니트리가 가장 먼저 자본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면, 중국 내 선도적 입지를 굳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 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상장 지도 심사까지 통과한 현재 유니트리 IPO 는 사실상 마지막 스퍼트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니콘 기업에서 '상장사'로 나아가는 이 과정은 중국 스마트제조 산업 업그레이드의 상징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출처: IT 휴대폰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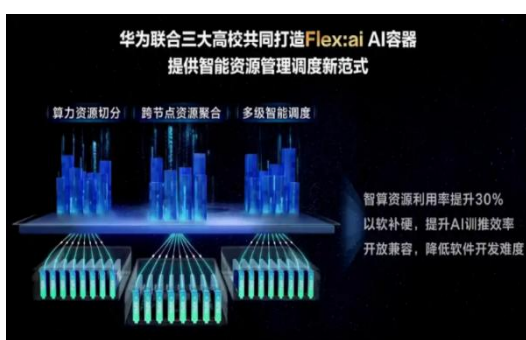
참고자료

- ▶ 메이르징지신문(每日经济新闻).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새로운 진전, 전기차 주행거리 1,000km 돌파 예상!
<https://baijiahao.baidu.com/s?id=1849560684513462683&wfr=spider&for=pc>
- ▶ 원찬서우자(孕产手册). 샤오미 자동차: 50 만 대 생산 달성이 의미하는 시장 확장력과 미래 청사진
<https://baijiahao.baidu.com/s?id=1849641968049579664&wfr=spider&for=pc>
- ▶ 차이런서(财联社). '인공태양' BEST 2 년 내 연소 목표, 중국 핵융합 연구 미지의 과학적 난제 영역 진입
<https://baijiahao.baidu.com/s?id=1849639163241975778>
- ▶ IT 휴대폰세계(IT手机世界). '유니트리, IPO 향해 돌진: 휴머노이드 로봇 부문 "첫 주식" 탄생
<https://baijiahao.baidu.com/s?id=1848927509023084929&wfr=spider&for=pc>

CHINA 창업

[기업분석] 화웨이, AI 컨테이너 'Flex:ai' 오픈소스 공개...엔비디아 Run:ai 맞서 이기중 칩 지원

화웨이는 최근 연산 자원 활용도를 30% 높이는 AI 컨테이너 기술 'Flex:ai'를 공개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엔비디아 GPU는 물론, 화웨이의 어센드(Ascend) NPU 등 다양한 연산 카드를 모두 지원한다.



Flex:ai는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 쿠버네티스(Kubernetes) 기반으로 설계된 XPU(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서) 풀링 및 스케줄링 소프트웨어다. GPU, NPU 등 AI 연산 자원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스마트하게 배분해, AI 작업량에 맞춰 연산 자원을 정확하게 배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AI 학습 및 추론 효율을 높이고, 개방성과 호환성을 강화해 개발의 부담을 낮춘 점도 Flex:ai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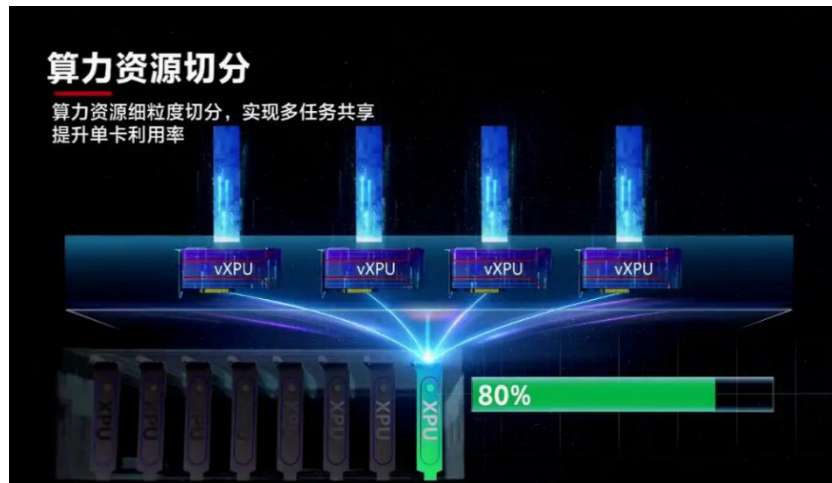
Flex:ai는 공개 후 '모칭(魔擎)'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웨이가 앞서 공개한 Nexent 지능형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AppEngine 애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션 툴, DataMate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랫폼, UCM 추론 메모리 관리자 등 여러 AI 툴과 함께 'Model Engine' 오픈소스 생태계를 완성하게 될 전망이다.



Flex:ai 의 3 가지 핵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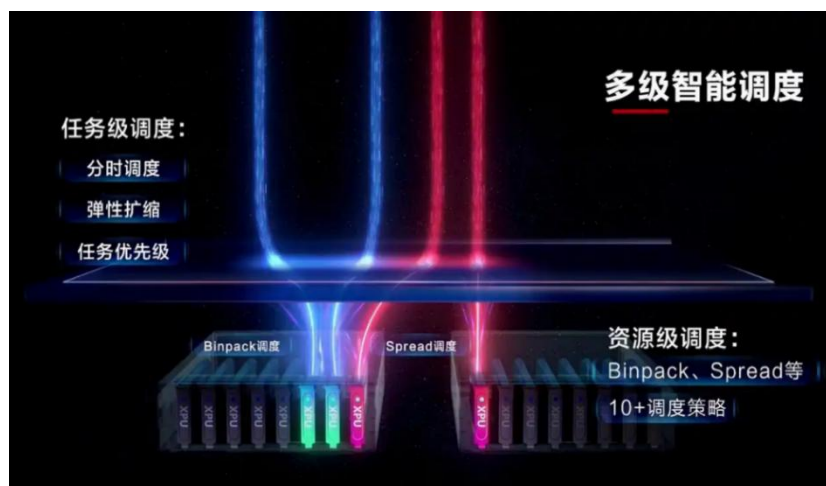
■ 연산 자원 분할로 한 장의 카드를 N 장으로 쪼개 동시 처리

연산 자원 분할 기술을 통해 GPU, NPU 와 같은 단일 연산 카드를 여러 개의 가상 연산 유닛으로 쪼개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단위는 최대 10% 까지 세밀하게 조정된다. 이 기술을 통해 단일 카드로도 여러 AI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전체 카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AI 작업에서 특히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연산 자원의 평균 활용도를 30% 향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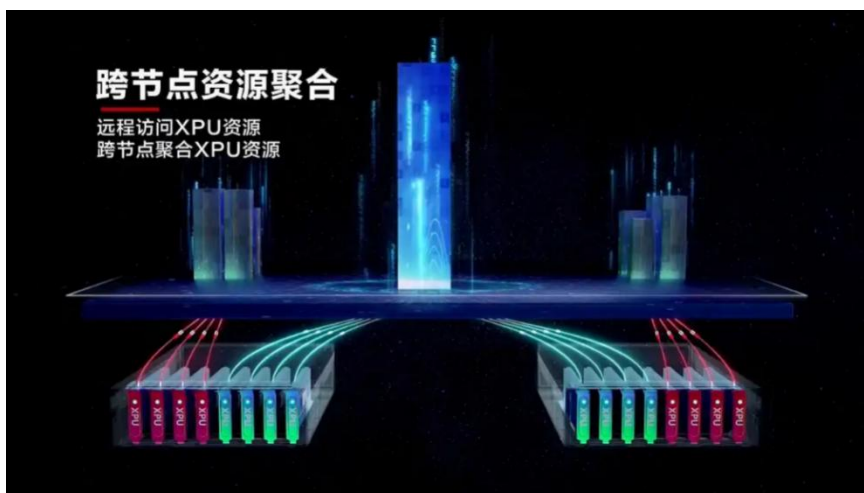
■ 다단계 지능형 스케줄링을 통한 AI 작업과 연산자원 간 '정밀 매칭' 구현

Flex:ai 는 전역 스케줄러인 '하이 스케줄러(Hi Scheduler)'를 통해 클러스터의 작업 흐름과 자원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AI 작업의 우선순위, 필요한 연산량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로컬과 원격에 분산된 가상 GPU·NPU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치한다. 이를 통해 여러 AI 작업이 동일한 자원을 시간을 나누어 공유하며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작업량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 노드 간 연산 자원 통합으로 범용 연산과 지능형 연산을 유기적으로 결합

클러스터 각 노드에 남아 있는 XPU 자원을 모아 '공유 연산 풀'을 구성하고, 일반 서버는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AI 작업을 이 풀에 있는 GPU·NPU로 전달해 처리한다. 이를 통해 범용 연산 자원과 지능형 연산 자원을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다.



AI 대형모델 시대, 필수적인 AI 컨테이너 기술 고도화

화웨이가 Flex.ai 컨테이너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화웨이는 대형모델의 시대에 컨테이너와 AI의 결합을 필수라고 보고 있다.

컨테이너는 경량 가상화 기술로, 모델 코드와 실행 환경을 하나의 독립된 경량 이미지로 묶어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해, 배포 과정에서 흔히 겪는 환경 설정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컨테이너는 필요한 만큼 GPU·NPU 자원을 할당하고 회수해, 클러스터 전체의 자원 활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가트너(Gartner) 분석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AI 작업은 이미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 및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전체 AI 워크로드의 75% 이상이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화웨이는 이와 관련해, 기존의 컨테이너 기술만으로는 AI 작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AI 시대에는 새로운 AI 컨테이너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언어모델(LLM)의 컨테이너 이미지는 10GB를 넘기는 경우가 흔하고, 멀티모달 모델은 TB급까지 커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미지가 커지면 기존 컨테이너로는 초대형 이미지를 빠르게 로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환경을 세팅하는 데만 몇 시간씩 소요된다.

또한 기존 컨테이너는 CPU·메모리 같은 일반 자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AI 대형모델의 학습 추론에는 GPU·NPU와 같은 지능형 연산 자원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기존 컨테이너가 이러한 이기종 연산 자원을 정교하게 나누어 쓰거나, 작업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AI 작업도 GPU·NPU 한 장을 그대로 점유하게 되고, 원격 연산 자원을 불러 활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기존 컨테이너는 고정된 자원 배분과 일반적인 스케줄링에 기반해 동작하지만, AI 워크로드의 자원 스케줄링에서는 작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작업의 SLO 특성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자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엔비디아의 Run:ai 대비 가장 큰 강점은 '가상화'와 '지능형 스케줄링' 기능

앞서 엔비디아는 2024년 4월, 7억 달러(약 49.7억 위안)에 이스라엘의 AI 인프라 기업 Run:ai를 인수한 바 있다. Run:ai의 핵심 기술은 GPU 활용률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으로, 이 인수를 통해 엔비디아는 AI 연산 자원 관리 분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화웨이 Flex:ai는 가상화 기술과 지능형 스케줄링 영역에서 Run:ai 대비 더욱 강력한 강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가상화 기술

Flex:ai는 로컬 가상화 환경에서 단일 연산 자원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기능 외에도, Flex:ai만의 '원격 가상화' 기술을 제공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복잡한 분산 작업 설정 없이도 클러스터 각 노드에 남아 있는 유휴 XPU 자원을 묶어 하나의 '공유 연산 풀'로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능형 스케줄링

Flex:ai의 지능형 자원 및 작업 스케줄링 기술은 클러스터의 작업 흐름과 자원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AI 작업의 우선순위, 필요한 연산량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로컬과 원격에 분산된 가상 GPU·NPU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치한다. 이를 통해 각 AI 워크로드마다 필요한 자원을 제때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높은 AI 작업은 더 많은 연산 자원을 우선 배정받으며, 자원이 모두 사용 중일 때는 다른 작업에 배정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은 자원이 여유로운 야간 등 비피크 시간대에 배치되어, 시간 단위로 자원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또한 Flex:ai는 증분 학습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스터 내 새로 유입된 데이터 변화를 자동 감지하고, 정해진 임계치를 넘으면 데이터 플라이휠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AI 컨테이너 진화가 이끄는 AI 대중화

산업과 업무별로 요구되는 AI 워크로드가 점점 다양해지는 가운데, Flex:ai의 오픈소스 공개는 기업들이 연산 자원 활용도를 높일 핵심 기술과 실제 적용 사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 사례와 새로운 시도가 업계 전반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또한 오픈소스로 공개된 Flex:ai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개발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이기종 연산 자원 가상화와 AI 플랫폼 연동을 위한 표준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솔루션이 마련되고, AI의 대중화 역시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 즈둥시(智东西). 화웨이 획기적인 AI 기술 발표, 엔비디아 50억 달러로 "유사 모델"을 인수(刚刚, 华为 AI 突破性技术公布! 英伟达花 50 亿才买到"同款"). (25.11.26)

<https://baijiahao.baidu.com/s?id=1849395514506581306&wfr=spider&for=pc>

[기업분석] AI 칩 개발 기업- 캠프리콘(寒武纪)



기업 개요

캠프리콘(Cambricon, 寒武纪)은 2016 년에 설립된 AI 칩 개발 기업으로, 기계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프로세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캠프리콘은 클라우드-엣지-디바이스를 아우르는 통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연동 및 학습-추론 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형 칩 제품군과 플랫폼형 기초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캠프리콘의 제품은 서버 제조사와 다양한 산업 기업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금융, 교통, 에너지, 전력,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AI 작업 처리가 가능한 연산 기반을 제공해, 산업 전반의 AI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영 현황

2025 년 상반기 기준, 기업의 매출은 28 억 8,064.35 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7.82% 증가(281,587.81 만 위안)했다. 상장사 주주 귀속 순이익은 10 억 3,808.26 만 위안, 비경상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9 억 1,256.68 만 위안으로,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주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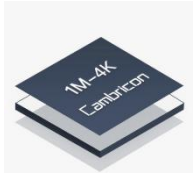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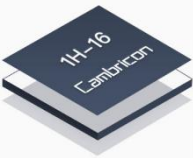
■ 지능형 가속 카드

구분	사진	소개
스위안(思元) 370 시리즈		• 공정/구조: 7nm 칩렛 • 성능: 390 억 트랜지스터, 256TOPS(INT8) • 지원 기술: LPDDR5, MLU-Link™ 멀티칩 인터커넥트 • 특징: 고성능·고효율·협업성·개발 용이성
스위안(思元) 270 시리즈		• 성능: 비희소 모델 기준 128TOPS(INT8) • 정밀도 지원: INT4(256TOPS), INT8(128TOPS), INT16(64TOPS), 부동소수점, 혼합 정밀도 • 아키텍처: 캠프리콘 MLUv02 • 응용 분야: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 지능형 엣지 컴퓨팅 모듈

구분	사진	소개
스위안(思元) 220 엣지 컴퓨팅 모듈		• 용도: 엣지 컴퓨팅 AI 가속 • 구성: 4 코어 ARM Cortex-A55, LPDDR4x, 통합 인터페이스 • 활용: AI 코프로세서 또는 SoC 솔루션 구현

■ 기기용 지능형 프로세서 IP

구분	사진	소개
Cambricon-1M 시리즈		• 아키텍처: 3 세대 캠프리콘 • 개선점: 성능·전력효율·연산 완성도 강화 • 정밀도 지원: FP32-FP16-INT32-INT16-INT8-INT4 혼합 처리 • 신규 기능: 압축·해제 모듈 추가 • 활용 분야: 맞춤형 AI·다중 영상 실시간 처리·자율주행 시스템 등
Cambricon-1H 시리즈		• 세대: 2 세대 캠프리콘 아키텍처 기반 • 개선점: 초기 모델 대비 전력 효율 대폭 개선 • 활용 분야: 컴퓨터 비전·음성 인식·자연어 처리 등 핵심 AI

■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구분	사진	소개
Cambricon NeuWare		• 목적: 클라우드·엣지·디바이스용 AI 프로세서 개발 지원 • 아키텍처: 학습추론 통합 처리, 클라우드-엣지-디바이스 동시 지원 • 특징: 동일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통합 생태계 공유 • 효과: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식·최적화 용이
MagicMind		• 정의: MLIR 기반 그래프 컴파일 기술을 실제 서비스 수준으로 구현한 추론 가속 엔진 • 기능: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모델 해석 및 백엔드 코드 자동 생성·최적화 • 효과: 학습 장치(MLU/GPU/CPU) 무관, 적은 개발 비용으로 캠프리콘 전 제품군에 추론 서비스 배포 및 경쟁력 있는 성능 확보 가능

참고자료

▶ 캠프리콘 공식 웹사이트((寒武纪官网). (25.11.26)

<https://www.cambricon.com/index.php>

[지역분석] 스자좡 하이테크구

개요

■ 허가 일자

스자좡 하이테크구는 1991 년 3 월 국무원 승인을 받아 국가급 하이테크 개발구로 지정되었다.

■ 주요 산업

바이오헬스, 차세대 전자정보 산업, 화공 신소재

■ 주요 지표

구분	2022 년	2023 년	성장률
등록 기업 수	29,348 개	32,273 개	10.0% ↑
총 자산	9,181 억 위안	9,827 위안	7.0% ↑
영업 수익	3,454 위안	3,710 위안	7.4% ↑
하이테크 기업	1,177 개	1,228 개	4.33% ↑

스자좡(石家庄) 하이테크구는 1991 년 3 월 국무원 승인을 받아 조성된 초기 국가급 하이테크 개발구로, 국가 의약 신형 산업화 시범기지, 국가급 녹색산업단지 등 18 개의 국가급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국가급 혁신 플랫폼 20 곳이 구축돼 있으며, '창업공간+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특화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전주기 육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선도기업 7 개, 하이테크 기업 1,228 개, 기술형 중소기업 4,284 개를 육성했으며, 유효 발명 특허는 5,510 건에 이른다. 또한 국가급 인력자원 산업단지와 해외 인재혁신 창업기지 등 첨단 인재 플랫폼을 구

축했으며, 현재 국가급 첨단 인재 16 명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 하이테크구는 바이오의약, 전자정보, 화공 신소재를 주력 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의약 산업은 항체, 백신, 면역보조제, 고품질 제네릭 의약품 등 7 가지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자정보 산업은 에너지전자와 광전자정보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전용 집적회로, 소프트웨어, 산업인터넷 산업을 특화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우주항공 정보와 로봇 산업을 전략적 도약 분야로 지정하였다. 화공 신소재 산업은 '스자좡 정유·화학 녹색전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중에너지(冀中能源) 석탄화학, 닝진(宁晋) 염호 자원 등 지역의 대표 자원과 연계해 석유화학, 석탄화학, 염화학이 통합된 순환형 경제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KIC 중국 뉴스

KIC 중국, '2025 BiiG WAVE Global China' 통해 한중 기술·창업 협력의 새로운 교두보 마련



11 월 25 일부터 28 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2025 BiiG WAVE Global China'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본 프로그램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이랜드 이노베이션밸리(EIV),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KIC 중국은 핵심 주관기관으로서 한중 기술 교류와 스타트업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의료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친환경 소재, 인공지능, 콘텐츠 IP 등 중국 시장의 고성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스타트업 7 개사가 최종 선정돼 참여했다.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다.

- XENOHELIX: 정밀 분자진단 및 피부 미용 신소재
- VSParmtech: 항암 효능 강화 신약 'VS-101'
- NearBrain: AI 기반 뇌혈류 평가 솔루션
- BeyondMedicine: 세계 최초 턱관절 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OssteoBionics: 인공뼈 나노 레이저 용융기술 기반 치과용 임플란트
- JchiGlobal: 복합 하이브리드 발열·방열 코팅 소재
- MillennialsWorks: 캐릭터·체험형 콘텐츠 'Space:V'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이번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한국 스타트업 7 개사와 상하이 복단 대학 장강연구원의 기술협력 교류회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공동 기술개발 기회 발굴 ▲기술 투자 및 사업화 논의 ▲푸장대학교 R&D 인력과의 연계 등 중국 시장 전략 구체화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랜드이노베이션밸리와 함께 'BiiG WAVE Global China'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중국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스타트업과

기술 수요 및 산업 트렌드를 직접 연결하고 기술 매칭, 정책 정보 제공, 투자 연계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이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혁신·창업 생태계 간 협력과 연계를 심화할 계획이다.

KIC 중국 GSF 포럼 개최



GSF 大湾区科学论坛



KIC 글로벌혁신센터

2025GSF(웨강야오대만구포럼)포럼 한국혁신기업K-Demo Day(수소산업)

🕒 2025/12/07 14:00
📍 광저우난사국제컨벤션센터4층 402

협력기관

주최기관

(한)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중)광동성과학기술연구회(GSTMTR)

협력기관

(한)IBK기업은행,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KHNES),
수소지식그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서울경제진흥원(SBA), 경북테크노파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중)광동과학기술협력관측진센터, 중카이기계전자공학학원,
광동성기술경제연구발전센터, 광동성전문발전관측진회,
광동성생산혁신센터, 난하이과기국, 광동성과학기술관측진회,
센후실험실

후원기관

(한)한국연구재단,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중)광동성과학기술, 광동성과학기술협회, 광동성과학원

행사소개

"웨강야오대만구과학포럼(Greater Bay Area Science Forum, GSF)"은 '일대일로' 국제과학기술구연맹(ANSO)의 발족에 따라 중국과학기술부와 광동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급 과학기술 포럼으로, 매년 광저우시에서 개최됩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는 한국 기관으로서 최초로 2024년 GSF 포럼에서 한중 기업협력 프로그램을 주관하였으며, 11개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로드쇼 및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 풍부한 협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 GSF(웨강야오대만구과학포럼)은 12월 6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며, KIC 중국은 광동성 과학기술청, 광동성 과학기술연구회와 협력하여 '한국혁신기업 로드쇼 K-Demo Day' 분과포럼을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 기술협력 강화와 산업 발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저우난사국제컨벤션센터



QR코드 스캔 후 참여 신청

01. 행사일정 / CONFERENCE SCHEDULE

오전	AFTERNOON
13:30—14:00	• 등록 및 입장 행사 참석 안내 및 행사 배포
14:00—14:05	• 오프닝 진행자
14:05—15:30	• 귀빈 축사 및 전문가 주제강연 수소산업에 관한 인사이드
15:30—17:30	• 혁신기업 기술발표 기업기술발표 및 시나리오 적용 발표
18:00—20:00	• 한중기업가교류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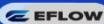
02. 산업시찰 일정 / INDUSTRIAL VISIT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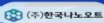
시 간	일 정	비 고
2025.12.07	오전: 난사국제컨벤션센터 도착 오후: 2025GSF포럼-한국혁신기업로드쇼	K-Demo Day
2025.12.08	포산시난하이구 *수소 관련 산업단지 및 기업 *난하이 보급형 스마트 수소에너지 시범단지	산업시찰
2025.12.09	광저우 *수소 관련 산업단지 및 기업	산업시찰

03. 기업기술발표 / TECHNOLOGY SHOWCASE COMPANY











수소연료전지의 성능, 내구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인 수소 공급/재순환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부품, 모듈을 제조하는 운전장치(BOP) 전문기업

수소에너지 섹터의 소재 전문기업으로, 탄소 나노야키 텍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소연료전지(PEMFC) 및 수전해(PEMWE)용 전극 소재와 촉매 솔루션을 개발과 상용화 하는 기업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을 기반으로 고효율 · 고내구 수소 생산 장비를 개발 · 제조하는 다테크 기업

무촉매 수전해 기술을 개발해 그린수소 시장에 혁신을 가져온 기업이며, 고가의 희귀 금속 촉매나 분리막, 전해질 없이도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NICE 공법이 핵심

마이크로 모빌리티 파워트레인 전문 스타트업으로, 고효율, 고성능 모터와 ECU 개발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한된 규격 내에서 최대 출력과 에너지 효율, 경량화 기술이 요구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을 주요 타겟

수소 압축기, 산업용 공기압축기, 그리고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수소 안전모니터링 및 예지보전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하여, 스마트 에너지 · 스마트시티 분야의 첨단 솔루션을 제공

수중 플라즈마(Submerged Plasma)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나노소재를 연구 · 개발 · 양산하는 기술기업

고에너지 분쇄 · 분산 · 혼합 장비(High Energy Mill, Bead Mill) 전문기업으로, 리튬이온전지용 소재 생산 장비를 시작으로 첨단 분체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2024년 1월 중관촌에 등록된 신생 기술 기업으로 화산은 수소 분석 센서 분야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생산 설비를 구축 중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2025 년 제 5 회 선전 국제 자동차 전자 기술 전시회	2025.12.03-2025.12.05	선전	자동차
제 7 회 정보 및 컴퓨터 과학 분야 최전선 기술 국제 학술 대회(ICFTIC 2025)	2025.12.05-2025.12.07	칭다오	전자정보
2025 년 사물인터넷 및 전자정보공학 국제학술대회(IoTEIE 2025)	2025.12.05-2025.12.07	칭다오	전자정보
2025 년 지능형 장비, 차량 엔지니어링 및 자동화 제어 국제 컨퍼런스(ICEVA 2025)	2025.12.05-2025.12.07	선양	자동차
2025 년 2025 빅데이터 응용, 전기기계공학 및 자동화 국제학술회의(BDAMEA 2025)	2025.12.12-2025.12.14	쑤저우	전자정보
제 3 회 교육 및 인공지능 정보기술 국제 학술대회(ICIEAI 2025)	2025.12.12-2025.12.14	광저우	전자정보
제 5 회 컴퓨터, 정보공학 및 전자재료 국제학술대회(CTIEE M2025)	2025.12.12-2025.12.14	하얼빈	전자정보
제 4 회 항공우주 및 제어공학 국제 학술대회(ICoACE 2025)	2025.12.12-2025.12.14	베이징	항공우주
제 5 회 환경오염 및 관리 국제회의(ICEPG 2025)	2025.12.12-2025.12.14	칭다오	환경보호
제 10 회 청정에너지 및 발전기술 국제 학술대회(CEPGT 2025)	2025.12.19-2025.12.21	창저우	에너지
2025 년 에너지 및 전력 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 국제 컨퍼런스(EPSSGT2025)	2025.12.19-2025.12.21	우한	에너지
제 3 회 인공지능, 시스템 및 사이버보안 국제 학술대회(AI SNS2025)	2025.12.26-2025.12.28	상탄	인공지능
2025 년 컴퓨터 비전 및 디지털 아트 국제 컨퍼런스(ICCV DA2025)	2025.12.26-2025.12.28	시안	인공지능
제 2 회 무인 시스템 및 자동화 제어 국제 학술대회(ICUS AC 2025)	2025.12.26-2025.12.28	창사	인공지능

KIC 중국 주간 중국 창업

www.kicchina.org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김종문
전화: +86-10-6780-8840
메일: info@kicchina.org